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 9

오늘의 말씀 (로마서 7:1-25)

- 1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 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 2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 3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 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 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 5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 6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 7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 8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 9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 10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 12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 13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 14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 16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죄의 권세

사탄의 활동은,

- 사탄은 타락한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이는 그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고, 권세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 “타락한 죄인이 사탄의 활동에 얼마나 미혹되어 이용되는가?”의 정도가 사탄의 지배 규모를 드러내게 되고 사람은 그 지배로 인한 현상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 지배력에 따라 영적전쟁내용과 승리보장이 달라집니다.
- 사탄의 지배가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요소에서 강하게 드러난다면, 귀신들림의 현상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육성소리, 귀신빙의현상 등)
- 사탄이 사람 스스로가 병을 일으키고 병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면, 플라시보 효과라든지 작동하지 않는 냉동고에 갇혀 얼어죽는다고 생각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얼어죽은 사건 등입니다.
- 생각과 감정만으로도 몸에 상해를 입히고 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탄의 공격 영역으로 유린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사탄은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욥2:7).

- 사탄의 지배력이 크면 클수록 그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이성과 의지가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일 경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발동, 명령, 선포함으로 사탄의 지배를 쫓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 사탄의 지배력이 정신과 생각과 말 등에 전반적으로 장악하여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장악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마태복음16:13-25).
- 말씀묵상, 암송 그리고 기도로 사탄을 대적하고 물리치며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킨다고 하지만, 영, 혼, 육 전반에 걸쳐 소홀해지고 느슨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정작 자기 스스로 점검하여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처 감지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과 그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방치에 대해 인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그런 부분을 노리고 지배하고자 하는 혹은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 선포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과 능력의 법”입니다.(21-25절)

로마서 7:21-25

- 21 그러므로 내가 한 ()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22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을 즐거워하되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이 내 마음의 ()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을 육신으로는 죄의 ()을 섬기노라

- A. 법이기 때문에 가지는 분명한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 B.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책임이 요구되어지며 심판과 징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 C. 몰랐다고 해서 용서되지 않습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2. 죄의 권세는,

A.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9,15절)

로마서 7:9

9 전에 ()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로마서 7:15

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는 것을 행함이라

B. 죄인 줄 알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8,11절)

로마서 7:8

8 그러나 죄가 ()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로마서 7:11

11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는지라

C. 죄를 원하지 않지만, 죄를 짓게 만듭니다.(16-18절)

로마서 7:16-18

16 만일 내가 ()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니라

18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은 내게 있으나 ()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D.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만듭니다.(19-20절)

로마서 7:19-20

- 19 내가 원하는 바 ()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을 행하는도다
- 20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니라

E.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싸움”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21-25절)**3. 선을 행하고자 하는 싸움이란(21-25절),****로마서 7:21-25**

- 21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로다
- 22 내 속사람으로는 ()의 법을 즐거워하되
- 23 내 지체 속에서 한 () 법이 내 ()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
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2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 25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의 법을 육신으로는 ()의 법을 섬기노라

- A. 타락한 본성의 죄인은 4가지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 하나님의 법, 죄의 법, 내 마음의 법, 싸우고자 하는 법
- B.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 하지만, 그 법을 따르지 못합니다.
- C. 죄의 법을 미워하지만 기어이 죄의 법을 따르고 맙니다.
- D.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마음의 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도록 부추기는 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E. 이것이 바로, 싸움의 법입니다.
- F. 부단한 노력과 헌신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아닌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결국 지치고 쓰러지게 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 G. 그리고 싸우면 싸울수록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 아래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24

24 오호라 나는 ()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4. 죄의 권세를 이길 방법은 오직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1-2

- 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 2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의 법이 ()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하였음이라
- 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 4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